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WTO 가입 15주년 이행성과
2. 시장경제 지위 분쟁
3. 평가 및 직면과제

주요 내용

- 2016년 12월 중국은 WTO 가입 1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가입 15년 동안 중국은 비약적인 교역증대와 대외개방의 성과를 달성
 - 2010년 관세인하 조건이행을 완료하고, 2005년 비관세조치 관련 이행사항을 완료하였으며, 서비스무역과 투자시장 개방을 확대함.
 - 가입 15년 동안 대외교역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개방형 체제 구성이 추진되고 세계시장에서의 역할이 증대됨.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이후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회원국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 중국정부는 중국이 WTO 가입 15년이 경과하면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으로 획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이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가입의정서 의무 위반으로 WTO에 공식 제소하여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음.
- 중국은 경제세계화의 최대수혜자로서 신속한 무역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외부환경 변화와 중국내 우위요소 소진, 추가적 개혁개방의 난관 등 새로운 해결과제에 직면
 - 세계교역량과 성장률이 하락하는 한편 보호무역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인구감소와 국유기업 개혁 및 서비스개방 확대 또한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임.
 - 무역구조 전환 및 안정성의 확보와, 교역상대국의 우호적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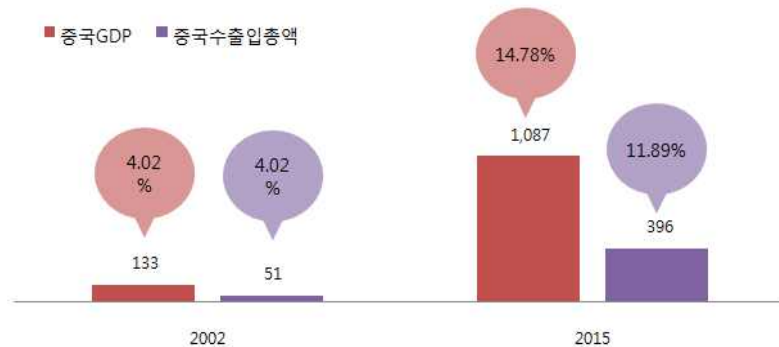
1. WTO 가입 15주년 이행성과

■ 2016년 12월 중국은 WTO 가입 1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가입 15년 동안 중국은 비약적인 교역증대와 대외개방의 성과를 달성

-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6년간의 협상 끝에 WTO의 제14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2015년 현재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 세계 1위 교역국, 1위 외자이용국, 2위 해외투자국 지위를 차지
- 중국의 GDP는 2001년 1조 3,300억 달러에서 2015년 10조 8,7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2%에서 14.78%로 상승
- 수출입 총액은 2001년 5,100억 달러에서 2015년 3조 9,600억 달러로 약 8배 성장하였으며,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2%에서 11.89%로 7.87%p 상승

그림 1. 중국 GDP 및 수출입 총액과 세계경제 점유율 변화

(단위: 백억 달러)



자료: 『融入世界的步伐更加坚持——写在中国加入世界贸易组织15周年之际』 (2016), 『经济日报』, (12월11일)

가. 가입조건 이행

■ [관세 인하] 2002년 1월 1일 전면적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 모든 관세인하조건 이행을 완료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 가입시점인 2001년 15.3%이던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대부분의 관세인하조건이 이행된 2005년 9.9%, 모든 이행이 완료된 2010년 9.8%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9.8% 수준을 유지
- 2016년 현재 농산물 평균관세율 15.1%, 공산품 평균관세율 8.9%

그림 2. 중국의 관세율 수준 변화



자료: 중국해관총서.

■ [비관세조치] 2005년 1월 승용차, SUV, 버스 등 35종 상품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철폐함으로써 비관세조치 관련 WTO 가입조건을 모두 이행

- 가입 이후 5년 이내에 수입쿼터, 수입허가증, 수입입찰 등의 비관세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15종 상품에 대한 초기 쿼터수량 및 매년의 쿼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비관세조치 관련 주요 가입 이행조건
- ‘가입의정서 부속서 3’은 424개 세목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표 1. 중국 비관세조치 철폐 이행조건

철폐 시기	비관세조치 해당 세목 수
가입 시	209
2002년	80
2003년	16
2004년	84
2005년	35
합계	424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加入议定书』 (2002), 『国务院』,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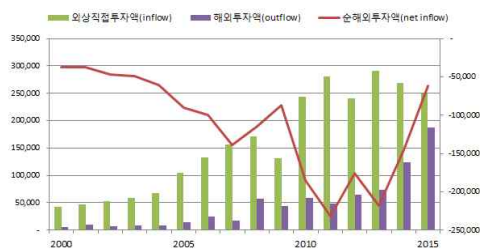
- 가입 이후 중국은 이행조건에 따라 총 424개 세목에 대한 비관세조치 철폐를 완료

■ [투자 및 서비스무역 개방]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서비스무역 수출입액이 급격히 증가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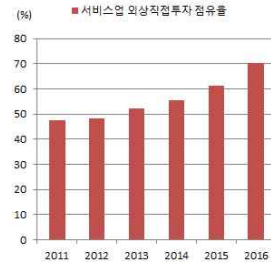
-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승하면서 해외자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외자유입과 해외투자자의 대규모 연계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규모도 확대(그림 3 참고)
- o 2015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878억 달러의 신고점을 기록
- 해외유입자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서비스업으로의 유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o 전체 실질외자유입액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처음으로 50%를 초과한 후 해마다 증가하여 2016년에는 70.3%에 도달

그림 3. 중국의 외자유입액 및 해외투자액 추이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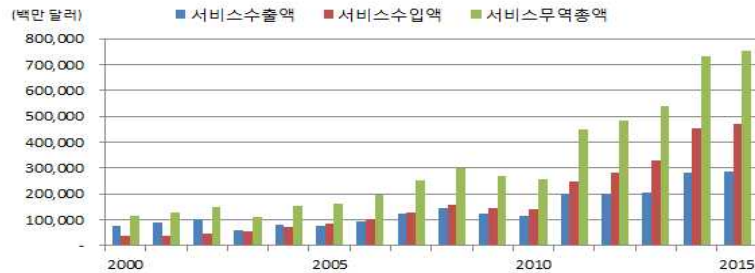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서비스업의 실질외자유입액 점유율



자료: 관권기사 정리.

-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내 대표처 설립을 허가하고, 주중(住中)대표처의 지역과 수량 제한을 철폐
- 서비스업 개방이 점차 확대되면서 서비스무역 총액이 2000년 1,149억 7,000만 달러에서 2015년 7,554억 4,000만 달러로 약 6.57배 증가

그림 5. 중국 서비스무역 변화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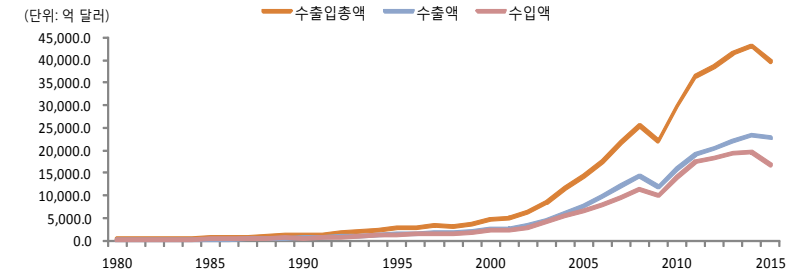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나. 교역성장

■ WTO 가입 이후 15년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가장 비약적으로 확대된 기간

- 상품무역 수출액은 2001년 2,661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2,765억 7,000만 달러로 연평균 14.4%의 성장률을 보이며 약 7.6배 증가
- 상품무역 수입액은 2001년 2,435억 5,300만 달러에서 2015년 1조 6,820억 7,000만 달러로 연평균 10.3%의 성장률을 보이며 약 6배 증가

그림 6. 중국 상품무역 수출입액 변화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국제무역연구및의사결정지원시스템(国际贸易研究及决策支持系统).

■ 가입 초기에는 저렴한 임금을 기반으로 한 노동집약형 상품이 주요 수출품이었으나, 기술수준 향상으로 자본집약형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무역구조의 질적 변화가 발생

- 대량의 외국자본 도입과 그에 따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중국 제조업의 전반적 기술수준이 향상
- 인구보너스 감소와 원가우위 약화에 대한 대응으로 산업 구조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자본집약형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상승

■ 전 세계 생산 네트워크와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 제조업의 비약적 발전을 달성

- 현재 중국 제조업은 약 200종류의 상품 생산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제조업의 중심으로 성장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다. 개방확대

■ ‘일대일로’ 건설, 자유무역실험구, 중미투자협정(BIT) 등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구성을 추진

-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는 ‘신창타이’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
- ‘일대일로’ 건설, 자유무역실험구 제도 혁신, FTA 체결, 중미쌍방투자협정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이며,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기본구조 구축이 완성단계에 진입
 - 이미 30여 개의 국가와 ‘일대일로’ 건설 공동협력 합의를 체결하였고, 70여 개 국가 및 국제조직이 이에 협력 의사를 표명
 -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톈진(天津), 푸저엔(福建)에 자유무역실험구의 기반을 다진 후 랴오닝(辽宁),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庆), 쓰촨(四川), 산시(陕西) 등 7개 지역으로 확대 중
 - 시장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를 기초로 하는 중미투자협정(BIT)이 실질적 성과를 취득

■ WTO 가입 후 세계 경제무대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확대되었으며, 선진국과 협력하여 국제거시경제 정책의 협조를 추진하는 등 세계 경제구조 재편에 큰 역할을 수행

- 가입 초기에는 중국이 다자간무역 체계의 규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15년 동안의 경제발전을 거치며 세계 지배구조의 보호자 및 공헌자로서 역할이 확대

표 2. 중국 WTO 가입 15년의 성과

성과	주요 내용
가입조건 이행	- 2010년 1월 1일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 2005년 비관세조치 완화조건 이행완료 - 외국자본 투자 및 서비스무역 개방 확대
대외무역 성장	- 상품무역 수출액 약 7.6배, 수입액 약 6배 증가
산업구조 전환 업그레이드	-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으로 전반적인 제조업 수준 향상 - 지속적 산업구조 전환 추진으로 자본집약형 상품의 국제경쟁력 상승
중국제조업의 비약적 발전	- 세계 제조업의 중심으로 성장 - ‘중국제조 2025’ 및 ‘중국 스마트제조’ 추진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구성	- ‘일대일로’ 건설, 자유무역실험구 시행, 중미투자협정(BIT) 등 추진
세계무대 발언권 확대	- 세계 다자간 무역체계 규칙 보호 선도

자료: 본문 내용 정리.

2. 시장경제 지위 분쟁

■ 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15조는 중국 수출상이 스스로 ‘시장경제 지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가입 후 15년 동안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덤핑 폭 산정기준으로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15. Price Comparability in Determining Subsidies and Dumping

Article VI of the GATT 1994,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ti-Dumping Agreement”) and the SCM Agreement shall apply in proceedings involving imports of Chinese origin into a WTO Member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a)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under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either Chin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or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China based on the following rules:

(i)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the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Chin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ii) The importing WTO Member may use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China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not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b) In proceedings under Parts II, III and V of the SCM Agreement, when addressing subsidies described in Articles 14(a), 14(b), 14(c) and 14(d), relevant provisions of the SCM Agreement shall apply: however, if there are special difficulties in that application, the importing WTO Member may then use methodologies for identifying and measuring the subsidy benefit which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prevailing terms and conditions in China may not always be available

as appropriate benchmarks. In applying such methodologies, where practicable, the importing WTO Member should adjust such prevailing terms and conditions before considering the use of terms and conditions prevailing outside China.

(c)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notify methodologies us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a) to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and shall notify methodologies us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to the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d) Once China has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 that it is a market economy,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be terminated provided that the importing Member's national law contains market economy criteria as of the date of accession. In any event,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ii) shall expire 15 years after the date of accession. In addition, should China establish, pursuant to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a particular industry or sector, the non-market economy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no longer apply to that industry or sector.

자료: WTO(<https://www.wto.org/>).

■ 중국은 가입 15주년인 12월 11일을 기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가 인정되어 중국 수출상품의 반덤핑 조사에 중국의 가격과 비용이 기준가격으로 수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획득을 반대

- 중국은 이미 80여 회원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으나, 주요 반덤핑 제소국인 미국, 유럽, 인도 등이 여전히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2016년 12월 12일 중국은 미국과 EU를 가입의정서 의무 위반으로 WTO에 공식 제소하여, 현재 분쟁 조정절차를 기다리는 상황

■ [시장경제 지위 개념] 시장경제 지위 개념의 근원은 냉전시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한 나라의 시장경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적 명칭으로 간주 가능

- 일국의 시장경제화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냉전시기 서방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무역차별을 적용하면서 사용하기 시작

o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전체 경제에서 시장경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정부의 경제 관여 정도에 따라 시장경제국가와 비시장경제국가로 구분

■ [판정기준] WTO협정에 시장경제 지위에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판정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WTO 회원국들은 자국 법률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시장경제 지위 여부를 결정

- [미국] ①통화의 태환성 정도 ②임금비용 결정에 관한 기업과 근로자의 자유협상 여부 ③외국회사의 합작기업 설립 및 기타투자 허용 여부 ④정부의 생산재 소유 및 통제 정도 ⑤자원배분, 가격결정, 생산량 결정에 대한 정부 관여 수준 ⑥기타요인의 6가지 기준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판정

- [EU] ①의사결정 과정의 명확한 국가 관여 여부 ②국제적 준칙에 따른 회계장부 작성 여부 ③생산비용과 재무상황이 비시장경제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 ④기업의 설립과 폐쇄에 관한 정부 관여 여부 ⑤시장의 환율결정 기능에 따라 시장경제 지위를 판정

■ [중요성]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 수출상품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징수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침.

-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되면 수입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때, 중국 국내 가격이 아닌 제3국의 '대체가격'을 덤핑 기준가격(정상가격)으로 설정 가능

o 일반적으로 해당 수출국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시장경제국가의 해당 상품 가격을 대체국 가격으로 인용함.

o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을 보면, 중국의 대체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멕시코 등의 신흥국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 경제발전 수준이 중국을 크게 상회하는 국가들도 선정된 바 있음.

- 이 경우 실제 수출국인 중국의 가격이나 생산비용은 전혀 참조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국 선정 여하에 따라 중국 수출품 가격이 덤핑가격으로 간주되어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 입장] 가입의정서 제15조 d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가입 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대체국가격 적용과 관련된 a항 (ii)가 만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016년 12월 11일 이후 중국은 자동적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주장

- 제3국 대체가격 적용은 중국기업에 매우 불공정한 규정이며, 일종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 가입 시 이 조항을 제한한 것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며, d항의 규정을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정한 규칙을 파괴하는 행위로 국제 무역규칙에 대한 부정적 선례를 남기는 행위

-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대체가격 적용조항의 만기를 통지했지만 미국과 유럽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권리와 WTO 규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표명

■ [반대국 입장] 미국, 유럽, 인도, 일본 등 중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 중 미국과 EU의 반대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큼.

- 미국과 EU는 중국의 양대 수출시장으로, 중국 전체 수출 총액의 35%를 차지함.
- 미국의 반대가 가장 강경하며, 상무부 장관 프리츨커(Pritzker)는 2016년 11월 중미연합상무위원회(中美商贸联委会)에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미국이 반덤핑 관세 계산방식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는 뜻을 표명함.
- 유럽의회는 2016년 5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 반대결의를 채택한 바 있으나, 11월 유럽의 회와 유럽이사회가 반덤핑법률제도 수정안을 제출하며 중국에 대한 합리적 대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 내부에서 중국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대한 여러 논쟁과 각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함.
- 반덤핑법률제도 수정안은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우를 진행함으로써 WTO 가입의정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 EU 관계자는 새로운 반덤핑 가격 계산 시스템이 중국과의 무역 시에 무역구제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함.

■ [반대원인 분석]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반대하는 근거는 주로 중국 가입의정서 제15조에 대한 법률적 해석 문제이며, 경제와 정치적 원인으로 간과할 수 없음.

- [법률] 중국 가입의정서 제15조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의 시장경제 기준에 중국이 부합하지 않음.
- 분쟁의 가장 큰 쟁점은 시장경제 지위의 자동취득 가능 여부에 달려 있는데, 가입의정서 제15조 d항은 대체국가적 적용을 15년 이후에 중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 취득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음.
- 또한 제15조 d항은 수출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인정은 수입국의 내부 법률에 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상황은 미국과 유럽이 규정한 시장경제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경제] 시장경제 지위 여부는 반덤핑 제도의 성공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이를 종종 체제전환국에 대한 무역차별의 도구로 사용함.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발생 후 유럽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할 경우 저렴한 중국상품이 대량 수입되어 유럽의 사회와 경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이러한 경제적 영향은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정치] 시장경제 지위 문제는 정치적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유인이 있음.

- 상술한 국내법상의 판정기준과 같은 법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자유화 수준이 중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러시아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2002년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임.

3. 평가 및 직면과제

가. 성공요인

■ 중국은 지난 15년간 세계경제와 융합하여 무역증가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국내의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었음.

-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 참여를 시작하여 국제무역, 투자, 서비스 및 기술이전 방면의 국제적 협력관계를 건립함.
- 세계 요소시장을 이용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중국의 생산능력을 더욱 향상시킴.
-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경감되는 등 광범위한 최혜국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조건이 크게 개선됨.
-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미국과 더불어 G2 대국으로 성장함.
- 중국의 WTO 가입은 다른 회원국에 더 많은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경제 성장을 추동함.
-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상바이관(桑百川) 원장에 따르면, 세계 실질 GDP에 대한 중국의 공헌율은 2001년 0.53%에서 2015년 24.8%로 대폭 상승함.

■ [외부환경]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 추세와 경제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는 인터넷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세계화가 신속하게 추진되던 시기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신속한 경제성장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는 중국 경제발전에 유리한 외부 조건으로 작용
- 국외 수요 증가로 인해 중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삼두마차(三驾马车)' 중 하나인 수출이 급성장

■ [국내환경]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가 중국의 경제발전을 더욱 촉진

- 광활한 영토 내에서 경제발전의 각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적 연동과 노동력의 전이가 중국 특유의 발전 동력을 제공

- 중서부 지역의 농촌 잉여노동력이 연해지역으로 이동하는 한편, 대량의 외자가 유입되면서 연해지역의 자본과 노동 부족량이 증가하여 연해지역 경제가 급성장
- 연해지역의 경제가 먼저 성장하는 동안, 중서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잉여노동력은 중서부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

■ [제도정비] 중국은 WTO 가입 이전 20여 년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대외개방에 필요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환경과 안정적 정치환경을 조성

- 대외무역 관리체제 개혁을 조기에 추진하고, 외국 자본의 수시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
- 특히 연해지역은 특별구 형태의 선행 시범과정 등을 통해 개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 1990년대 중후반 다수의 국유기업들을 민영화하였으며, 시장경쟁을 선호하는 수많은 민영기업가를 배출
- 재정과 세무의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외자도입 경쟁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표 3. 중국 WTO 가입 15년 성과의 주요 원인

주요 원인	내용
외부환경	-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세계화 - 세계 대부분 국가의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어 해외수요가 확대
국내환경	- 광활한 영토와 많은 인구
제도정비	- 무역관리체제 개혁 조기 추진, 외자 우대정책 시행 - 국유기업 민영화 추진, 재정 및 세무 개혁

자료: 본문 내용 정리.

나. 직면과제

■ [외부환경 변화] △전 세계 교역 및 경제성장률의 하락 △반세계화 추세 강화 △다자간 무역체제 확산 침체 △신흥국의 자본유출 리스크 확대 등 세계경제 형세 급변에 따른 불확정성과 복잡성이 증대

- 세계 교역성장률이 하락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등 세계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시장 수요가 침체되고 무역 증가속도가 대폭 하락하였으며, 단기간 내에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제도 시행, 무역장벽 설치, 반덤핑 제소 등을 비롯한 반세계화 추세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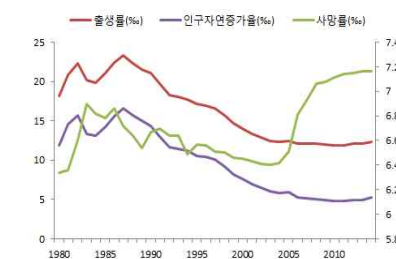
중국 WTO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 다자간 무역체제 확산이 침체되고, 지역경제 일체화와 무역구 건설이 세계경제 발전의 새로운 조류로 부상
- 2016년 6월 현재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은 모두 282개이며, 이러한 지역경제일체화 경향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을 일부 잠식하며 자유무역에 난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최근 미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 세계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추진되면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국가의 자본유출 우려가 확대
- 미달러 강세 상황에서의 세계적 통화정책 완화는 전 세계 자금을 미국으로 유입시킬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자본유출 압력도 확대될 것이며, 이는 위안화의 안정성에도 영향

■ [인구보너스 소진] 30여 년간 진행된 가족계획(计划生育) 정책으로 중국의 출생률이 대폭 감소하였고 고령화 수준도 꾸준히 상승하여, 인구보너스¹⁾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비교우위가 점차 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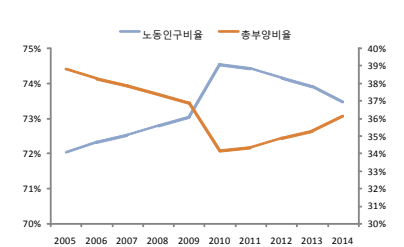
-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15~64세 노동연령인구비율은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며, 반대로 총부양비율²⁾은 꾸준히 상승(그림 8 참조)
- 부양부담 축소, 저축 증대, 투자 형성, 경제성장을 촉진하던 인구보너스의 점진적 소멸은 중국경제 발전에 여러 난관을 초래

그림 7. 중국 인구변화 추이(1980~2014)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8. 중국 인구연령 구조변화 추이(2005~2014)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사회의 고령화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未富先老)' 현상으로 인해 사회보장보험과 같은 전 사회의 경제비용이 증대하고 시장수요가 감소

- 1) 일반적으로 인구보너스란 인구구조 변화과정 중에서 출현하는, 피부양인구 비율의 지속적 하락과 노동연령 인구 비율의 지속적 증가로 노동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지는 현상을 지칭함.
- 2) 총부양비율은 비노동연령 인구수와 노동연령 인구수의 비율이며 통상 백분율로 표시함. 백 명의 노동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비노동인구 수를 의미하며, 인구와 경제발전의 기본관계를 나타냄.

중국 WTO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 사회보험 가입인구의 증가율은 침체하는 반면, 사회보험의 수혜자는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
- 정부는 세금징수와 사회보험비 납부액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도 함께 증가
- 핵가족화로 가정규모가 축소되면서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노인 복리와 건강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증가하면서 전 사회가 노인보호 문제에 직면
- 또한 노동연령 인구의 소비력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인구고령화는 사회 총수요의 약세를 초래
- 인구보너스 소진은 임금비용 상승과 기업 구인난(求人難)을 야기하여 중국제조업의 경쟁력 및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

■ [개혁개방 완성] 개혁개방 30여 년, WTO 가입 15년이 지나면서 소득은 이미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였고 시장화 수준도 높지만, 국유기업 개혁과 서비스업 개방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국유기업과 서비스업의 개혁개방은 외국 정부 및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며, 동시에 중국 내부의 이익관계가 매우 복잡한 분야
- 외국의 정부 및 기업들은 중국 국유기업이 특혜와 우대 없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진행할 것과, 서비스산업이 외국자본에 자유로운 개방을 허용하기를 희망
- 2015년 9월 국무원이 「국유기업개혁심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을 발표하는 등 각종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유기업 개혁이 단기간 내에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서비스업도 4대 자유무역실험구에서 시험 개방을 진행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수성과 기존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개방 속도가 매우 더딤.

■ [무역구조 전환]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역량 증가뿐 아니라 무역구조의 질적 전환이 필요

-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제조업 회귀정책과 중국의 비용우위 감소로 인해 중국 제조업 수출 리스크가 증대
- 중국 제조업은 세계 가치사슬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경쟁이 격화될 경우 급격한 이윤 축소 가능성이 존재
- 무역구조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국가들의 사례가 있으나, 중국은 넓은 영토와 막대한 인구에 의해 규모와 구조의 차이가 큰 타국의 교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 및 지역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무역구조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례
- 그러나 중국과 이들은 영역과 인구 규모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규모 국가의 무역구조 전환 경험에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상당히 제한적

표 4. WTO 가입 후 중국이 직면한 문제점 및 과제

문제 및 과제	주요 내용
외부환경 변화	- 세계교역량과 경제성장률 하락, 반세계화 추세 강화, 다자간 무역체제 확산 침체, 신중국 자본유출 리스크 확대
인구보너스 소진	- 출생률 감소, 급격한 고령화 - 전 사회 경제비용이 증대하고 시장수요가 감소 - 임금비용 상승, 기업 구인난 확대
개혁개방 완성	- 국유기업 개혁과 서비스업 개방 심화
무역구조 전환	- 세계 가치사슬 상방 이동 추진

자료: 본문 내용 정리.

■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및 반세계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

- 지난 15년간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 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보호 무역 추세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향후 중국 경제규모가 더욱 커지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중국을 위협요소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경제의 불리한 외부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사회과학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부연구원 쑤칭이(苏庆义) 박사는 늦어도 2030년 안에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함.
-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관계 완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중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우호적 태도를 이끌어내는 한편, 무역환경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주력

- 시장경제 지위 분쟁과 관련하여 미국 및 유럽 국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 확대가 요구됨.
- 시장경제 지위 판정은 법률적 요소 이외에도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 국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경제 개혁개방에 대한 확산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 규칙을 준수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무역의 공정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중국 수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 내부 개혁 및 구조전환이 필요

- 인구보너스 소진과 자원비용 증가로 인해 중국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여 국제경쟁을 재정비해야 함.

- WTO 가입 이후의 경제개방 동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내 개혁 추진으로 성장 동력을 보충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분쟁과 같은 외부 압력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
- o 진정한 개혁을 실현하여 자원배분 과정에서 시장이 결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 o 중국이 현재 추진 중인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简政放权)’은 미국과 유럽의 시장경제 지위 판정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임.
- 무역구조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한편, 무역주도형에서 투자주도형으로 중국 경제개방의 형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o ‘일대일로’ 건설과 아시아경제개발은행(AIIB)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음.

[참고자료]

「不让市场经济地位之争搅了中国庆祝入世十五年的雅兴」, 2016, 『中国社会科学院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12月14日)

「欧美承认中国市场经济地位问题及中国的对策」, 2016, 『国际商务研究』, (11月8日)

「融入世界的步伐更加坚持——写在中国加入世界贸易组织15周年之际」, 2016, 『经济日报』, (12月11日)

「十年的成与就——论中国入世十年」, 2011, 『商业文化』, (6月15日)

「中国的对外贸易」, 2011, 『国务院』, (12月7日)

「中国加入世界贸易组织的所有承诺全履行完毕」, 2011, 『新华网』, (12月7日)

「中国取消非关税措施的承诺全部兑现」, 2006, 『时代经贸』, (12月)

「中国“入世”议定书第15条与“市场经济地位”问题探讨」, 2016, 『国际商务研究』, (11月8日)

「中国入世十五年：回头望与向前看」, 2016, 『中国社会科学院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12月8日)

「中国“入世”十五周年回望」, 2016, 『中国经营报』, (12月12日)

「中国入世15周年系列文章」, 2016, 『中国社会科学院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12月14日)

「中华人民共和国加入议定书」, 2002, 『国务院』, (1月)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한지민(hanzhimin8@gmail.com)